



광양미술협회, 지원금 편법 관리 '의혹'



▲ 기자회견을 하는 광양 예술 발전 시민 연대 (전남CBS 박형주 기자)

한국예총 산하 미술협회 광양시지부가 같은 전시회를 이름만 달리해 전라남도 와 광양시로부터 예산을 중복으로 받아 내거나 사업비를 부풀리는 등 지원금을 편법으로 관리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양 예술발전 시민연대에 따르면 광양 미술협은 광양시에서 4백만 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제 15 회 광양예술제를 열었다.

광양미술협은 또 같은 기간 전라남도에서 문예진흥기금 3백만 원을 지원받아 제 15회 배알도 바다 미술제를 개최했다.

두 행사는 이름만 다르지 같은 장소에서 열린 동일한 예술제다. 광양시 관계자는 “같은 행사를 이름만 달리해 도와 시로부터 예산을 두번씩이나 받아내는 행위는 편법”이라고 밝혔다.

광양미술협은 여기다 전라남도 문예진흥기금을 광양시에 보고할 때는 자체부담금인 것처럼 꾸몄다. 이같은 행사는 지난 수년간 치러져왔다.

지난해 3월 개최한 포항미술협과의 교류전에서도 광양미술협은 광양시에서 행사비로 7백만 원을 지원받았고, 이 가운데 4백만 원을 올해초 열린 협회 정기총회 결산보고에서 도록제작비로 썼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광양시에 제출한 정산보고서에는 도록제작비가 4백만 원이 아닌 6백만 원으로 돼 있다. 또 현수막제작비나 작품운송비도 각각 20만 원씩 차이가 난다.

이같은 정산차이는 매화축제 사생실기대회나 성진강 전 등 다른 행사에서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광양 예술발전 시민연대는 2일 이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광양미술협이 이같은 방식으로 전라남도 와 광양시의 보조금을 횡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8년 동안 지부장을 맡아오다 지난달 자리에서 물러난 김 모 씨가 이같은 전횡을 저질러왔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기자회견에서 "도민과 시민의 혈세를 광양미술협의 전시회라는 미명아래 보조받아 전시회를 하면서 개인의 사욕을 채웠던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백만 원이면 충분한 작품 운송비를 3백만 원으로 과다 계상하는 등 각종 예산을 부풀려왔으며, 수

사 당국 등 관련 기관들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지부장이 미협 회원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준회원 명목으로 영입하거나 정회원 자격이 있는데도 가입을 불허하는 등 전횡을 일삼아 왔다며 김 씨와 현 집행부의 협회 탈퇴를 촉구했다.[BestNocut_R]

이에 대해 김 전 지부장은 협회 결산 보고와 광양시 보고액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협회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며, 개인 착복은 결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부정한 내용이 있으면 광양시 등에서 감사를 하면 될 것이라며, 시민연대 소속 미술인들이 광양미협 가입에 어려움을 겪자 이처럼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각종 부정을 폭로하겠다며 헐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jedirush@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승인일시 : 2008-07-02 오후 6:02:48

Copyright © Since 2003 by CBS, 노컷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닫기